

#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는 안심하는 농협으로”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주년 브리핑

농협이 올해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최대 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브리핑을 열고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과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당 185만원씩 총 1조9743억원의 소득 기여 성과를 낸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300억 원 증가한 2조5052억원의 소득 기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업관측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농산물 수급체계 확립과 축산물 수급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농식품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유통단계별 농식품 안전종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확대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00평 이상 농축협 판매장 식품 안전관리인증(하썹·HACCP) 인증확대 등도 추진된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권역별 계란 집하장(GP센터)은 2020년까지 10개소로 확대 건립할 계획이다.

농협은 올해 농업·농촌·농협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농업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 청년농업인 육성 대상자에게 창업보육, 종합컨설팅, 6차산업 및 스마트팜 교육 등을 제공하고, 농협재단에서는 농촌 정주를 희

망하는 장학생을 선발해 농고생 300명에게 연 100만 원, 농대생 100명에게 연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래농업지원센터의 기술, 자금, 판로확보의 One-Stop 컨설팅 확대, 2020년 3500명을 목표로 후계 축산인 육성, 인당 최대 30억 원 한도 청년농 스마트팜 자금을 신설·지원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서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협동조합 위상에 부합하는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 모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농업분야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멤버십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형 스마트매장 도입, AI 기반 농사도우미 챗봇, 블록체인 고객 인증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2조5052억 원,

“농가 2조5052억원 소득기여 추진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목표  
자금지원 등 청년농업인 육성 나서”

2019년 2조9782억 원, 2020년 3조 6357억 원 등 연차별 소득기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직역량을 총력 집중하고 100대 과제 중 10개의 핵심과제와 영농 사이클에 맞는 분기별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범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지 속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기반 안정화와 쌀값 상승세 지속 유지 등 현안 해결에도 농협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뉴시스

## 전력거래소 ‘미세먼지 대책반’ 구성

정부가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발전소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및 전력거래소는 이날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석탄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대책반은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대책반은 운영기간 동안 노후석탄 5기의 봄철 셧다운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준수 여부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추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 LH-전남·목포, 업무협약 체결

#### 목포남교 트윈스타 상가공간 활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일 목포남교 트윈스타에서 전라남도, 목포시와 ‘일자리 꿈터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꿈터 시범사업은 LH와 전라남도, 목포시 3개 기관이 목포남교 트윈스타의 상가공간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과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등 지원일자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개 기관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와 코워킹스페이스 일자리 상담센터를 운영,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공간 마련, 청년 소셜벤처 창업 지원, 공유주방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잡어스, JO B-US)는 국내 최초의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일자리 상담버스로 전남 곳곳의 임대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민의 전공과 경력 등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일자



### ‘일자리 꿈터 시범사업 협약’

박상우 LH 사장(가운데)이 5일 ‘일자리 꿈터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왼쪽), 박홍률 목포시장과 포즈를 취했다.

/LH

리를 소개하는 1대 1 취업상담 서비스다.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상담, 4차 산업혁명 관련 3D 프린팅·가상현실(VR) 체험존이 운영될 예정이며 창업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박상우 LH 사장과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잡어스”에 직접 탑승해 1일 상담사로 나섰다. 서예가 봉강 최규천 선생과 민태홍 화백은 일자리꿈터 현

판의 글씨체와 미술작품 등 재능기부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과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박상우 LH 사장은 “일자리꿈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접속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이라며 “일자리 꿈터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14년 만에 호주산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 쇠고기 판매대의 모습.

##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제치고 ‘1위’ 기록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10억 달리를 돌파한 가운데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도 호주산을 제치고 14년 만에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은 17만 7000t으로 2016년의 15만 6000t 보다 13.5% 증가했다. 이는 2004년부터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온 호주산보다 많은 양이다. 지난해 수입된 호주산 쇠고기는 17만 2600t으로 전년보다 3.95% 감소해 시장 점유율은 2위로 하락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1위를 달리다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했고, 수차례에 걸친 한미 정부 간 협상 끝에 2008년 ‘30개월 미만·뼈를 제거한 고기’라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재개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시장 정상 탈환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많이 완화됐고 최근 가격도 많이 안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식당 한우 메뉴로는 1인당 식사가액 기준인 3만 원을 맞추기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를 대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 김 수출 7년 만에 ‘5억 불’ 달성

### 해양수산부, 기념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7회 김의 날 및 수출 5억 불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김의 날 행사는 2010년 김 수출 1억불 달성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해수부는 정월 대보름에 김 복쌈을 만들어 먹으며 복을 기원하던 옛 풍습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을 ‘김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달성한 김 수출 5억 불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밥반찬과 김밥 등으로 친숙하게 소비됐던 김은 최근 건강식품 이미지를 구축하고 해외의 스낵문화를 반영한 ‘스낵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2010년 수출 1억 불 최초 달성을 이후 7년 만에 수출 5억 불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동남아시아 및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세계 109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김 수출 5억 불을 넘어 오는 2024년까지 김 수



정월대보름에 만들어 먹는 김복쌈.

/해양수산부

출 1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김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김 산업 연합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종=최신웅 기자